

## 애국주일예배



6.25를 기억하며 1년에 한번 드리는 애국 주일 예배에 현역 군인 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2,3부에는 전역, 현역 장교분들께서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자체제작한 탱크 무대장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금년 들어 제일 덥다는 35도가 넘는 6월 20일 (월) 춘천 봄내 호스피스로 들어가는 여름의 정원은 꽃들의 향연입니다. 생은 짧기만 한데, 마지막 순간이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가장 좋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에서는 매주 월요일, 4-5명의

봉사자들이 춘천 봄내 호스피스에 봉사를 갑니다. 봄내호스피스 기쁨의집은 말기 암 환우들을 위한 무료요양시설입니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 당회소식

1. 결혼피로연 관련업무는 봉사분과위원회에서 사무국으로 이관하기로 하다.
2. 평양노회100주년기념음악회[2011.10.16(주일) 오후7시] 장소사용 요청 건은 당회서기에게 위임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3. 담임목사의 케냐 및 베트남 해외선교사역 건은 가기로 결의하다.
4. 추가경정 예산의 건(207,466,900원)은 일괄심의하여 허락하기로 하다.
5. 개척교회를 정림빌딩 2층(송파구 거여동 20-5번지)에서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하다.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 / 사회복지사역을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십니다 /

| 프로그램 | 반가운학교                                                    | 사랑나무팀                                         | 전화상담사역팀                                                        | 호스피스사역팀                                                      |
|------|----------------------------------------------------------|-----------------------------------------------|----------------------------------------------------------------|--------------------------------------------------------------|
| 개요   | -학생들의 학습과 인성 발달을 도와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br>-독학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도대환영 | -발달장애인을 섬기고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                      | -전화매체를 활용하여 피 상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부서  | -여생을 질 높은 삶을 살다가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돌보며 가족 전도하는 활동            |
| 봉사자  | 교사                                                       | 교사                                            | 상담자                                                            | 봉사자                                                          |
| 조건   | -중/고등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기타 가능한 과목 강의 가능한 열정 있는 모든 성도  | -씩씩한 젊은 교사                                    | -상담교육 이수자<br>(장신대 : 2년 코스/교회에서 1/2 지원)<br>상담 전공자(3월부터 교회 자체교육) | -호스피스 교육 이수자<br>-심화교육 이수자<br>(희망자 교회 일부 지원)                  |
| 내용   | -주중, 주말 개인별 시간 조정 가능                                     | -매주 3부 예배시간<br>지하 사랑나무 교실에서 예배<br>-특별 프로그램 운영 | -화요일 : 오전 9시~오후 5시<br>-토요일 : 오전 9시~12시                         | -마사지/목욕/산책하기/반찬공급/책, 성경, 신문 읽어주기/말벗 등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섬김/치량봉사 |
| 연락처  | 손천숙 권사<br>010-7131-6804                                  | 유정식 안수집사<br>010-6290-2003                     | 배정선 집사<br>010-5376-0509                                        | 왕명숙 피택권사<br>010-5246-9473                                    |

## \* 성경 \_ 한자로 풀어보기

### 救援(구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救援(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

광복 후 5년 만에 공산당으로부터 6.25전쟁을 당하고 風前燈火(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救援(구원)의 字源(자원)을 공부해 보자.

救援(구원)의 辭典的(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이나 성경에서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 내는 일'로 定義(정의)

하고 있다.

★ 救(구원할 구)는 필요한 것을 갖게 된다는 뜻의 求(구할 구)와 위하다, 애 쓰다의 의미가 있는 攴(칠 북)의 변형체인 攴(동 글월문 방)의 畝字(합자)이므로 「간절히 구하는 자를 애써 구원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

★ 援(도울 원)은 手(손 수)의 변형체인 扌(재방 변)과 爰(당길 원)의 합자이므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고 끌어당겨 돕는다」로 풀이 된다.

★ 爰(당길 원)은 손을 뜻하는 爪(손톱 조)와 모으다의 뜻이 있는 一(한 일)과 友(벗 우)가 합쳐진 글자이므로 「손을 모아 벗을 끌어 당긴다」로 풀이할 수 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_ 례 12:2

통 권 \_ 제 287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6월 26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 세상의 빛과 소금 자임한 주님의교회의 23년

\_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 지난 23년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

초창기 주님의교회의 목회활동은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당시 교회 공동체의 논의에 큰 기반을 두고 있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0년의 임기 동안, 이재철 목사는 ‘본질성의 회복’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교회의 주인의 회복, 교회 헌금의 회복, 교회 본질의 회복을 추구하고자 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 16:18)는 말씀에 따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의교회’라고 명명했으며,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대 임영수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전제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친교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는 ‘크리스천의 대안의 공동체 건설’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로움의 사역’을 가치로 삼고, 사회와 불신자를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지향했다. 2007년부터 섬기고 있는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를 비전으로 채택했다.

에 있었던 기도모임에서, 공동체 전원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서원했다. 이는 재정의 50% 이하로 교회 살림을 하겠다는 내뱉과 검약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다. 그 실천으로, 창립예배 헌금 전액을 전남 묘도의 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토록 기부했다. 국내와 해외 선교, 북한 선교와 지원, 지역 복지 사업과 교육 지원에 헌신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매년 50% 내외의 재정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회 건물을 따로 소유하지 않고 공공건물의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세워졌다. 1988년의 창립예배는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드렸다. 창립이념에 공감하여 성도가 늘어남에 따라, 같은 해 11월에는 논현동 YMCA 2층 소망실로 옮겼으며, 1996년 3월에는 정신여고 4층 강당으로 옮겼다. 이후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 사이에 강당 신축과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창립 10년이 되던 1998년 11월에 대강당인 김마리아홀을 신축, 정신여고에 기증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처음 48명으로 시작했던 주님의교회는 지난 23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1년 6월 현재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매주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성도들은 9개 교구의 244 거자씨로 편성되어 있다. 박원호 담임목사 외에 전임교역자 16명, 비전임교역자 18명, 장로 22명, 은퇴장로 10명, 직원 16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섬김, 목양, 교육 사역에 14개 분과 위원회를 두고 98개 사역팀이 구성되어 교회 안과 밖을 섬기며, 10여 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 지원하고 있다.

< 편집부 >

주님의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습니다. 주님의 의와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자 남다른 헌신의 정신으로 섬겨온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주님의교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켜봅니다. - 편집자 주

주님의교회가 6월 26일로 창립 23주년을 맞는다. 1988년 6월 26일, 당시 이재철 전도사와 성도 48명이 모여 소박한 창립 예배를 올린 주님의교회의 출발은 남달랐다. 한국 사회가 오랜 정치적 질곡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함에 따라, 많은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목회의 목표로 여기던 시절에, 주님의교회는 ‘교회 본질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워졌다.

## 교회 재정의 50%를 이웃 사랑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이사야 6:8) 주님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립 전야

## 주간 목회력

<성찬주일> 7.3 (주일)  
<2011 상반기 거자씨 종강> 6.30(수)  
<개척감사예배> 6.26(주일) 오후4시  
\* 장소는 주보참조

<헝가리 후원선교물품기증>  
7.3 (주일)까지 / 1층 로비  
<비전트립 파송식> 7.3 (주일) 3부예배  
<비전트립> 케냐팀 (7.3~7.12)

<교육목회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7.3(주일) 영아부부터 시작 (포스터참조)  
<20플러스 여름수련회>  
6.30(목)~7.2(토) 국제광림비전랜드

## 주님의교회와 함께 한, 사랑과 섬김의 지난 4년



지난 6월 22일 아침 7시, 함글함글에서는 주님의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아 당회장 박원호 담임목사를 인터뷰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터뷰는 미디어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박대길 장로와 홍기협 함글함글 편집장이 진행하고, 담당 교역자인 최용석 목사가 함께 했다.

### 하나님 나라 소망이 교회의 근본

**1. 박대길 장로(이하 ‘박’ 이라 씀):** 주님의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공동체를 향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님의교회를 맡은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참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박 :** 주님의교회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곱 가지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란 무엇인지요?

▶ ‘하나님과 함께’는 교회가 늘 생각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이 틀은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공동체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질문 속에 언급된 ‘함께’라는 말이 참 좋군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함께’의 뉘앙스가 더 바람직하겠습니.

‘하나님과 함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도는 교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와 목회 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교회의 성장에 치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의미는 ‘변화’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의 변화, 정신의 변화, 목회구조의 변화, 내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의 뜻이 약해지므로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고, 십자가의 뜻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 체험은 목상을 통해서

**3. 박 :** 성경에 쓰여진 ‘말씀’과 현대사회에서 적용하는 ‘말’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라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요?

▶ 요즘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상대적 진리관 때문에 말씀의 권위에 도전을 받기 쉽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 말씀만이 진리이며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단계 성경공부, 예수친구사역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말씀을 좀더 알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4. 박 :**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기는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겠지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세로 해야 말씀을 진리라고 깨닫게 되고, 말씀의 중심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신학원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5. 홍기협 편집장(이하 ‘홍’ 이라고 씀):** 잠실지역은 1970년대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린주구 시스템’이라는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지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이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볼 때, 정신학원 내에 위치한 주님의교회의 역할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할까요?

▶ 정신학원이 잠실에서 도시계획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웃음)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청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와 함께, 우리가 당

장 해야 할 일은 정신학원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곧, 정신학원이 좋은 학교가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동안 학원 이사회와 노회가 함께 논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곧 가시화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6. 박 :** 주님의교회가 목사님께서 설정한 비전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전략의 성취도를 점검하신다면?

▶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지만,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말씀사역’ 같은 경우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사역’은 작년에 시작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참여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군요. 겨자씨가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7. 박 :**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 7가지 가치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후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님의교회는 방향과 목표의 성취도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시고 계신지요?

▶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아직 체계적인 점검의 방식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취도를 확인하는 대부분의 통로는 부목사들로부터의 보고입니다. 물론 이런 저런 경로로 만나 뵙는 교인들로부터도 단편적인 정보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역자의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부목사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교구관리부터 다른 전문 사역들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다양한 보고채널을 통해 교회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더욱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8. 박 :** 그 동안 주님의교회에 재임한 목회자들은 참 소중한 목회지침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제껏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틀을 만들고, 임영수 목사님은 해외선교와 영성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였고, 문동학 목사님은 청소년사역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오셔서 교회를 진단 하시고 나서, 봉사와 선교 쪽에 더욱 집중하여 균형 있는 교회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전문가는 어떤 한 교회 자체로는 재정적인 한계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교회 단위로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되, 교단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 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간의 연계가 잘 될 경우, 개별 교회가 노회의 감독과 전체적인 균형 안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개교회주의는 사실 엄청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갖추려다 보니 교회가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개별 교회가 재산을 갖다 보니 노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노회가 교회 재산을 다 갖고 있어서, 노회에는 개별 교회 목회자의 사례 금액까지 보

고됩니다. 따라서 노회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노회가 개별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 교회가 재산을 갖다 보니 노회의 통제력이 없을 뿐더러, 대형 교회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노회가 약하므로 조직적인 교회간 네트워킹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학교나 병원 운영과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전체가 사회에서 큰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9. 박 :** 오늘날 주님의교회가 새롭게 변화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 교회의 차원 뿐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대 환경은 포스트모더니즘인데, 아직도 장로교단은 근대사회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올 때에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 교단과 교회가 앞서서 변화하여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의 4부 예배처럼, 새로운 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이름과 개념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학교 개념이 아닌, 교육을 통한 목회활동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가 아니라 ‘교육목회원’으로 바꿨습니다. 주님의교회는 늘 새로운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10. 홍 :**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해외선교의 경우,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케냐, 남아공, 우간다 등에서 지원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교육선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교육이 따르지 않을 경우, 선교가 무너집니다. 교회나 학교는 지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곧 붕괴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독교 학교 교사의 절반이 이슬람교도라고 합니다. 학교는 세워놓았는데, 교회는 무너진 것입니다. 케냐의 경우는 70~80%가 그렇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이 교사가 되어 신앙을 계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세운 학교가 인접한 나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 박 :** 담임목사님의 사역 방향이 정해지면 더욱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님의교회는 청

소년, 교육, 복지, 선교 등 다양한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교회 역량을 좀 더 집중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은 저의 전공분야이므로, 자신의 관심 분야로 물고 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스스로 경계하는 중입니다. 다만, 교회 각 분야의 여러 분들과 충분히 교감하면서 진행할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감당해야

**12. 박 :**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회에서 많은 리더십을 보이는것보다, 교인들을 더욱 가까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미국에 있을 때는 교인이 천 여 명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화, 목요일 이들은 교인 가정 심방을 했습니다. 화요일은 기존 교인, 목요일은 새로 온 교인의 가정 식으로 진행했더니, 몇 년 되지 않아 전 교인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교회에서는 워낙 교인이 많아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담임목사가 전 교인을 심방하기란 어려운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여러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요즘 상황에서, 우리 교회라도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 직접적인 교인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안타깝지만, 교인들께서도 교회의 규모와 역할을 보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 박 :** 목사님께서 재임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결정한 사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교육선교의 개념입니다. ‘제자사역’ 등이 바로 그 일환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씨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또한, 그 동안 정리된 모든 교육과 선교의 자료를 영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교육 선교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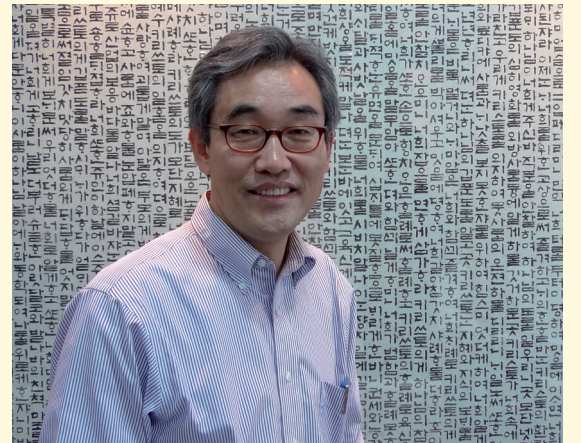
#### 사랑과 섬김으로 자낸 지난 4년

**14. 홍 :** 주님의교회에서 목회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기억은 어떤 것이었지요?

▶ 불신자였던 교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웃음) 또는, 교회를 전성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열심을 다해 섬긴다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무지개 축제를 보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온 것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웃음)

**15. 박 :** 바쁘신 사역가운데 목사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 그 동안 무릎이 좀 아팠었는데 회복되어, 요즘은 테니스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치려고 합니다. 저만의 운동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운동을 합니다. 목 운동부터 시작해서, 허리운동, 배 운동까지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팔 굽혀 펴기를 60~70번 합니다. 이렇게 15~20분 동안 몸풀기를 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 후에 새벽기도를 하러 옵니다. 설교 준비할 때엔 산에 많이 갑니다. 조용한 산길을 걸으면서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지요.



**16. 홍 :** 월요일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 주로 집사람과 시간을 함께 합니다. 코엑스에 가서 서점에서 두 시간 정도 책 구경을 합니다. 좋은 영화가 있으면 보기도 합니다.

**17. 홍 :** 목사님의 또 다른 우주인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회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실로 안내해서 서가를 보여주심. 목회실 벽에는 서가가 미닫이 형태로 이중으로 되어 있음.)

▶ 별로 자랑할 것은 없고요, 책이 좀 많습니다. 대체로 미국의 고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처분하는 책들 가운데 좋은 책들을 사 모았습니다. 전부 헌책들입니다. 좋은 책을 싸게 산 날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므로 그쪽 관련되는 책들이 많고, 영성과 관련된 책들도 많습니다. 설교 관련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많이 듣습니다. 주로 고전음악들, 성가 중에서는 성악가들이 부른 고전적인 음악들을 주로 듣습니다.

**18. 박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줄함울’은 교인들로서는 중요한 소통의 통로이며, 지역사회와 교감을 나누는 미디어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줄함울’의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 주님의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립한 교회가 아닌 데다가, 담임 교인의 수가 천 명 수준에서 칠천 명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회 방향을 선명하게 세우고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회의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교인들이 저를 믿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들도 교인 여러분의 열성을 다한 사역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교회 23주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우리 되길 기원합니다.

〈장경식 기자 avecarc@gmail.com〉



〈주님의교회 23주년 기념 설문조사〉

# 기도와 나눔과 섬김이 가장 공감하는 가치 \_ 23년의 세월을 23명에게 묻다

함줄함울에서는 주님의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아, 주님의교회를 섬기는 성도 23명을 선정하여 ‘나와 주님의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화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대상자는 무작위로 하되, 최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초에 교회에서 발간한 교구편성책자의 1교구에서 9교구까지의 명단 가운데 2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을 선정했으며, 혹 연락이 안되거나 교회를 옮긴 경우에는 그 다음 분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주관식으로 응답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기도’와 ‘나눔과 섬김’이 최고의 가치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의 7가지 가치 가운데 ‘기도’와 ‘나눔과 섬김’을 첫 손가락에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줄함울에서 주님의교회 창립 23주년을 기념하여 2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한 전화 설문 조사에 의하면,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주로 ‘친지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43%)’와, ‘이사와 함께 집 주위의 교회를 수소문하다가(35%)’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에 다니던 교회 비전과 맞지 않아서(13%)’ 교회를 옮긴 경우가 제시되었다. 주님의교회에 처음 출석한 후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인 것으로는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전통, 임기제, 재정의 투명성, 무기명 헌금 등의 설립 취지와 목적(39%)’을 첫손에 꼽았으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스러움(26%)’이 뒤를 이었다. 객관식으로 제시한,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7가지 가치(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 가운데에서는 단연 ‘기도(38%)’와 ‘나눔과 섬김(30%)’을 최고의 가치로 지목했다. ‘생명(9%)’, ‘공

동체(9%)’, ‘다 중요함(9%)’ 등이 뒤를 이었다.

## 설립 취지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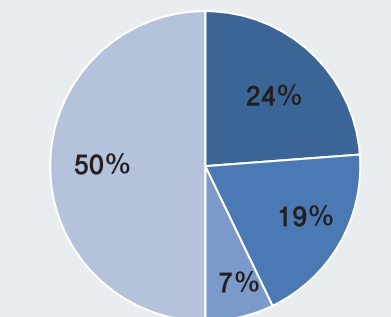
주님의교회에 바라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설립 취지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35%)’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부분적으로 ‘청소년사역을 좀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13%)’, ‘금요 심야예배, 수요 오전예배가 있으면 좋겠고 찬양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13%)’,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 도왔으면 좋겠다(9%)’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평신도가 교회와 소통할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셀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일하는 봉사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 대한 해외선교를 늘리자’, ‘기존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뀔에 따라 원칙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들도 제시되었다. 앞으로 교회 내 사역을 섬기고 싶은 분야는 ‘교육(35%)’이 압도적이었고, ‘주방, 주차 봉사(17%)’, ‘선교(9%)’, ‘찬양(9%)’, ‘문화예술(9%)’ 등이 있었으며, ‘복지재단’, ‘법률상담’, 어떤 분야든’ 등도 희망 분야에 들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본 정신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사역과, 교회의 성장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평신도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김희영 기자 \_ hykim62@hanmail.net >

## 인터뷰결과 \_

1. 주님의교회에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는지?
2. 주님의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3.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7가지 가치 중 가장 공감하는 가치를 꼽는다면?
4. 주님의교회에 바라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대, 방향이 있다면?
5. 앞으로 교회 내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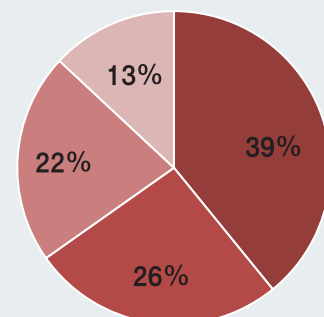
\* 새신자 2명 포함, 총 23명 (남13명, 여 10명)

1. 주님의 교회에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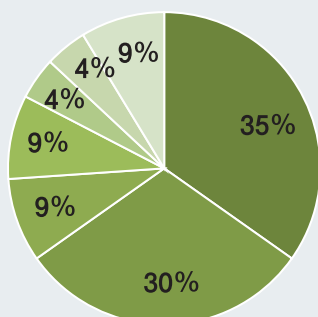
- 권유
- 이사
- 기존 교회의 비전과 맞지 않아서 (실망)
- 기타 / 남편이 과거 주님의 교회직원/ 부친이 창립멤버

2. 주님의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좋았거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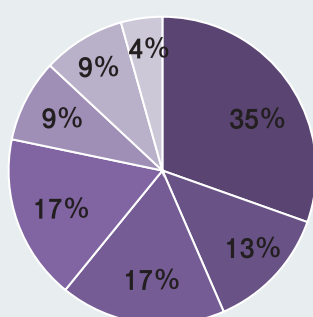
- 설립취지와 목적 / 무교회건물정신/임기제/재정의 투명성/헌금방법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스러움
- 말씀
- 기타 / 편리한 주차/성도의 교제/부친따라 어려서부터 다녔음

3.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7가지 가치 중 가장 공감하는 가치를 꼽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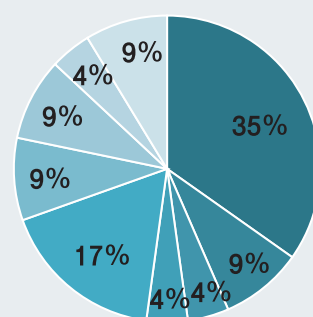
- 기도
- 나눔과 섬김
- 생명
- 공동체
- 기쁨
- 최선
- 다중요함

4. 주님의 교회에 바라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대, 방향이 있다면?



- 설립취지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 이대로 좋다/잘하고있다
- 청소년 사역 / 좀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 예배 / 금요심야예배, 수요오전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 찬양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 현재 구역예배가 좋다
- 기타 / 기존 성도와 현재 성도의 신앙 색깔이 달라 어렵다 / 형식적으로 겉치레가 아닌 진정으로 일하는 봉사 / 평신도가 교회와 소통(건의)할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 대형화된 교회의 셀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품는 사역
- 잘모르겠다
- 선교 (아프리카, 중동)

5. 앞으로 교회 내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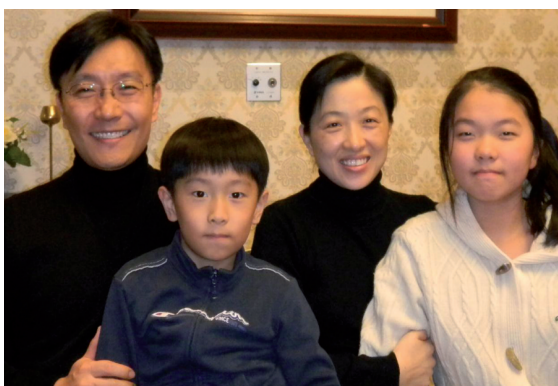
- 교육
- 찬양
- 선교
- 문화예술
- 복지재단
- 여건상 하기 어렵다
-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분야든 순종함
- 봉사 (주방, 주차)

<베트남 선교 \_ 최병관선교사 부부>

##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며...

### 선교사 파송식 <베트남 최병관 선교사>

주님의교회 해외선교정책은 교육선교입니다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정책과도 발맞추어 아시아대륙의 교육을 감당하기위해 거점국가인 베트남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2011년 4월당회에 결정되어 6월창립주일에 파송식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이미 5년 적응하며 준비를 마친 최병관선교사 부부입니다. < 해외선교부와 >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가정에서 2남중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지요. 성품이 강직하셨던 할아버지, 온화하셨던 할머니, 성실하고 가정적이셨던 아버지, 사리에 밝고 생활력이 강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조금은 엄하게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사랑됨의 도리를, 할머니께는 온유함을, 아버지께는 성실함과 효를, 어머니께는 삶의 지혜와 인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 근처 교회에 놀러나간 적은 많이 있었지만, 제 의지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중2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큰 어려움 없이 교회에 적응을 잘 하게 되었고,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세례를 받고 봉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고등부 3년 내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부 23학년 때 선생님은 신학생이셨는데,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신앙의 회의적인 물음들에 대해서도 정성껏 대답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주의 종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이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세 번째 소중한 만남은 신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교육과 일년 후배로 만난 제 아내(김경희)는 처음에는 여성으로서 보다는 함께 공부했던 아무진 후배로 기억됩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미운 정 고운 정 들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성으로 보이게 되더군요. 6년여 가까운 교제기간을 거쳐 98년에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반려자로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도우며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선물로 주신 13살 될 딸 수하와 9살 된 아들 성규로 인해 가정의 행복이 더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이 있다면 교회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제 신

앙의 뿌리가 되었던 여의도순복음교회, 그리고 신학생이 되면서 새롭게 만나 장로교회의 전통을 배울 수 있었던 새문안교회,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던 오류동교회, 1998년 중국에 견습선교사로 나갔을 때 만났던 학원으로 한인교회, 그리고 중국인 교회들... 그곳에서 저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경험하였고, 중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목도하며 큰 도전을 받고 귀국 후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여 교육전도사로 3년간 사역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었던 기능제일교회, 첫 전임사역지로 만나서 목회의 기본을 잘 배울 수 있었던 묘동교회, 이어서 10개월 동안 담임목사 대행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염리교회, 그리고 한인목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4년 반 동안 섬기면서 선교지 교회의 특성과 베트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참 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섬겨 오면서 처한 형편과 처지는 다 달랐지만 어느 교회 하나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이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베트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교회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트남 땅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뒤를 좇아 마음 모아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베트남 선교 사역 소개

### “왜 베트남 선교인가요?”

베트남은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김새도 비슷한데 문화도 비슷하여 우리에게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려시대에 베트남에서 망한 왕조가 고려로 망명하여 화신 이씨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양국 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베트남 아가씨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베트남은 우리와 친근하고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도와야 할 나라입니다. 나아가 선교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직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선교의 문이 닫혀 있지만, 경제개혁개방 정책으로 점점 그 문도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베트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베트남의 교회와 협력하여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이 절실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의 교회가 힘을 다해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 “저희는 이렇게 선교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런 선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1) 기독교교육 선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교육은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든든히 하고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역사를 보더라도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주일학교임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특별히 베트남은 젊은이 인구가 많습니다.(평균연령 27.2세) 또한 그들도 우리처럼 자녀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아직 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학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

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현지 베트남 교회 교단 총회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하여 베트남 교회를 앞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재 베트남 교회의 기독교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천 영역으로는 문서 번역사역과 현지 교회 교사 양성 사역,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교육연구소 및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만들어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 2) 현지의 개척교회 협력선교

베트남은 선교사가 직접 선교하지 못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기에,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현지 지도자와 교회가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도록 하는 것은 더없이 효과적인 선교 방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현재 베트남 교회는 교인 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교회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단은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계속적인 전도와 교회 건축 및 자립을 위한 노력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교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미 주님의 교회가 개척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에게 재정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위에 서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 3) 지역개발 선교

베트남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으로 여러 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경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젊은 이들의 이농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점점 소외되어가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역은 앞으로도 중요한 선교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미 18년간 빈롱이라는 지역에서 지역개발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덕규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유치원 및 양로원 사역, 사랑의 집짓기, 소액대출제도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등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병원을 짓고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23주년 기념음악예배〉

##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난 6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님의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음악예배로 드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관한 이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국악칸타타 공연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합창에 소금과 대금, 피리, 가야금, 해금, 장구를 연주하는 경기도립국악합주단원의 국악 반주와 오르간, 첼로 반주가 더해져 예배하는 성도들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향연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양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예배 음악 현실에서

성도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국악칸타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익숙한 국악 장단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더 가까이 다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주부를 포함하여 300쪽에 가까운 창작 칸타타의 노랫말을 쓰고, 그 위에 은혜로운 가락을 엮은 작사, 작곡자가 임마누엘 찬양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권덕원 안수집사이며, 작곡자의 지휘로 주님의 교회 창립 23주년을 기념하여 초연되었다는 점에서 연주에 참여한 찬양대원들이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감동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칸타타의 주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



한 감동의 은혜를 더하며 진정한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이 서로 교감하며 교체하는 가운데 가족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대원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토요일 연습 전 시창 훈련을 통하여 찬양대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독보력이 향상된 것은 덤으로 얻은 선물입니다. 권덕원 집사가 작사·작곡한 국악칸타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찬양곡집으로 편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 성가대가 이 칸타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찬양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광주집사 \_ 임마누엘찬양대 베이스〉

## 후원교회 목회자 초청 수련회를 마치며



주님의교회에서 후원하는 도시와 농촌의 미자립교회와 기관, 그리고 군과 경찰서 관련 목회자 초청 수련회가 6월 20일부터 6월 22까지 남양주의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국내선교분과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준비된 이 수련회는 열악한 환경의 목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족을 격려하며 조금이나마 치열한 목회현장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쉼이 있게 하고 영성 강의 등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 힘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6월 20일 주님의교회에 모인 목회자들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교회 투어를 마친 후 국제광림비전랜드로 자리를 옮겨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영성, 은혜, 쉼”이라는 주제로 계획된 이 수련회의 첫 강사로 나선 박원호 목사는 “교육 목회란?”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12단계 성경공부, 예수 친구사역 등 새로운 형태의 목회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또 자유롭게 목회자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용산 CGV에서 “소명3”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식어 가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리라는 결단도 다시 했고, 유해룡 교수의 “영성의 길: 자기발견과 기도생활”이

라는 강의에 심취했고 마지막 날 서범석 목사의 “나는 나를 목회합니다”라는 제목의 강의와 최우영목사의 “충분히 좋은 사모의 행복일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영성에 대한 바람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을 조금은 해소하였다.

주님의교회는 현재 30곳의 농어촌교회, 28곳의 도시개척교회, 20곳의 기관, 그리고 11개 군경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 200,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목회현장은 교인 수가 10명이 안되는 교회, 많아 야 20명 미만이 태반인 미자립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역시 재정적 문제이다. 한달에 현금 총액이 5만원 인 교회도 있고, 공공근로로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에 보태는 목회자도 있었다. 혹 도시지역의 아이들이 방문하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인근 성도의 집을 찾아 가야만하는 실정이다. 밤에 걸렸지만 살기 위해 죽자 사자 목회현장으로 달려간다는 사모님 등 눈물 겨운 사연이 많은 곳이 목회의 현장이다. 이들이 제일 갈급한 것이 물론 재정적 후원이다.

그리고 재정적 후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목회를 지원하는방법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 여름 성경학교의 지원, 선생님, 교제, 선물, 일손 돕기, 이미용 서비스, 의료상담 및 서비스, 영정사진 촬영, 농산물사주



기, 그리고 기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마음만 있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후원교회 목회자 초청 수련회를 향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지쳐가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새 힘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받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감동하는 목회자도 있었고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도 있었고 잘 왔다며 다음을 기약하며 밝은 표정으로 돌아 갔다. “영성과 은혜와 쉼”이라는 주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순간이었다. 2박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욕구를 다 채워 줄 수는 없었지만 한 줄기의 시원한 청량제가 되고 영양소가 된 수련회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 사명감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귀한 시간이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고 수고하던 스태프들도 어떤 행사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하였다. 모든 일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고 간식 등의 준비도 품위있게 아름답게 준비되었다. 예산 상 값비싼 음식이나 간식은 제공하지 못했지만 목회자들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지극했다고 자부하며 그 점에 그들이 특히 감동하였던 것 같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지극한 정성은 전달된 것 같다. 수고하신 농어촌교회사역팀, 도시개척교회사역팀, 기관선교팀, 군경선교팀, 제2여선교회, 제4여선교회, 사진으로, 그리고 본부를 맡아 수고하신 스태프 등 한 분 한 분 귀하게 섬기신 손길위에,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몸을 던지고 있는 목회자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쳐시길 기도합니다.

〈박중순 장로〉

## 2011년 피택자 수련회 마쳐



지난 6월 10(금)일부터 11일까지 2011년 피택자 수련회가 경기도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열렸다. 금요일 오후 4시 교회를 출발한 버스는 2시간여 달린 후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승동 기도원에 도착했다. 마침 그곳은 본교회가 제작한 성막이 설치된 곳으로 수련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전임교역자 대다수가 참석하여 새로운 교회 일꾼에 대한 기대가 큼을 반영했다. 김용일 서기 장로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본 교회의 교인이 7천~8천명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가져다주는 돌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며 새로운 피택자들이 헌신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담임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실과 미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체험적인 설교를 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되 사회현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교회와 교인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존재하지만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부정과 부패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알곡공동체를 통해 성경지식이 허술한 교회, 삶의 자세가 허술한 교회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사님은 교회행정을 운영할 때, 공동의회를 통한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담임목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모든 교회조직이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 응답시간에 하태원 집사는 “내년부터 토요일무제가 정식을 실시되는데 토요일 뮤직스쿨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출석교인에 비해 담당교역자가 부족한데 늘릴 생각은 없는지, 노령 성도들에 대한 재산관리 교육 실시는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피택자 교육은 지난해 11월 21일에 시작하여 장장 8개월에 걸친 교육을 실시했는데 많은 피택자들이 전 교인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택자 교육은 정요섭 목사님이 담당하고 정준호 안수집사와 윤여금 권사가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기별회장에 임근원 피택자, 총무에 이성균 피택자가 맡기로 했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 2011 주님의교회 임직자소개

#### — 장로 —



김성구

#### — 안수집사 —



임근원



이상록



노대홍



윤희육



김기창



김관호



노환옥



박동수



하영중



김순중



강석인



김익훈



김달원



박현욱



김복수



나영일



김이권



임익수



하태원



이성균



이재덕

#### — 권사 —



이연숙



장근희



최인실



김동순



조성희



김종란



손경숙



유석희



최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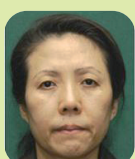
우금순



박주희



정승아



곽인평



오미혜



김순희



김혜중



홍기현



임미경



왕명숙



김현희



성향순